

‘다시 맞는 오월’…광주 5·18묘지 참배객 발길 이어져

악천후에도 ‘추모 열기’ 가득해
“영령께 감사·속죄를”…눈시울
지역 학생들 현장 계기교육도
“오월정신 잊지않고 기억할 것”

“5월의 첫날을 맞아 영령들께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고자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1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만난 김수현(65)씨는 “12·3계엄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겪으며, 오월광주의 정신이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학 시절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으며, 공수부대의 폭력에 쫓겨 전남도청 인근 자택에 몸을 숨겼던 경험이 있다. 그는 “마지막 날 집에 숨어 들던 가두방송의 울부짖던 목소리, 이어진 총소리와 비명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느끼는 일종의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있다”며 “영령들에 대한 감사와 속죄의 마음을 담아 참배를 오게 됐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어느덧 45번째 오월을 맞은 민주묘지에는 영령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그날의 합성과 상흔을 반추하며, 그들이 염원했던 ‘대동세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1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보성중학교 학생들이 추모탑 참배를 위해 행진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마음 깊이 새겼다.

이날 이른 시간부터 내린 비와 천동번개 등 악천후 속에서도 추모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차례를 지내러 온 유족부터 영령들의 생전 친구와 지인, ‘노동자의 날’ 휴일을 맞은 가족 단위 시민까지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 11주기 기념행사 중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산화한 김철수 열사의 고교 동창 김재철(52)씨도 묘역을 찾아 묵념을 올렸다.

김씨는 “5·18 ‘노동자 해설사’로 활동하

게 돼, 관련 공부도 하고 친구도 보기 위해 찾아왔다. 고인은 고교 3학년의 어린 나이에 바른 성품을 바탕으로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왔다”며 “친구가 희망했던 공정한 세상과 현실의 간극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다. 누구보다 용감했던 그의 정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애달픈 감회를 밝혔다.

일동중학교와 서석중학교 등 광주지역 학교들도 현장 중심의 계기 교육에 나섰다.

일동중학교 1학년 학생 75명은 민주묘

지 내 유영봉안소를 찾아 열사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들의 헌신을 되새겼다. 또 ‘광주정신’의 의미를 스스로 고민해 글로 적고, 탐방 중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체험형 수업도 함께 진행됐다.

지도교사 박숙희(50)씨는 “5월을 맞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자 견학을 기획했다”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논란과 맞물려 5·18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는 지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은(14)양은 “역사적인 현장을 직

접 찾아 이야기를 들으니, 5·18민주화운동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게 아쉽다”며 “영령들의 사진을 눈 앞에 마주하며 마음이 아팠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행동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보성중학교와 해남 우수영중학교 등 멀리 떨어진 전남지역 학생들도 민주묘지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현준(보성중 1년)군은 “수많은 묘역 앞에 서니 겪어보지 못한 그날의 고통이 가슴 깊이 전해졌다”며 “광주·전남 곳곳에서 항쟁을 이어간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12·3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영령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묘지를 찾은 타 지역 방문객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묘역 앞에서 그날의 참혹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경건하게 헌화와 묵념을 올렸다.

경북 구미에서 온 김영진(44)씨는 “5월을 맞아 광주에 있는 5·18사적지를 돌아보고, 마지막 코스로 민주묘지를 찾았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모태”라며 “그들이 꿈꿔왔던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과 오월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준영·이정준 기자

“왜곡된 5·18기사 나올 때마다 고통…엄벌해 달라”

5·18재단·유족, 스카이데일리 고소
허위사실 유포·사자명예훼손 혐의
“세 차례, 계엄군 희생 규명 확인”
“엄정 수사·단호한 처벌” 촉구

5·18기념재단과 피해자 유족 등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지속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 고 조사천 씨와 고 최미애 씨의 유족 등은 1일 스카이데일리 대표 A씨와 5·18 왜곡기사를 써온 소속 B기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5·18기념재단과 유족 등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데일리가 고인들을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해 학살된 것처럼 왜곡하고 계엄군의 역사적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5·18 특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의 ‘북한 개입설’ 주장과 신원불명의 계엄군 등의 증언을 근거로 수차례 왜곡 보도했으며 지난 2월15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왜곡된 기사를 유포했다.

이들은 “계엄군은 시위대에 의해 포위됐고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 “고(故) 조사천씨가 태극기를 들고 장갑차를 타고 가다 무장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임신부 고(故) 최미애씨는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고 조사천씨의 배우자 정동순 여사 등이 1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5·18 왜곡 보도를 일삼아온 스카이데일리를 고소할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정문 인근에서 무장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국가차원 5·18 진상조사 결과 스카이데일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1980년 군부의 조사,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이들의 죽음이 모두 계엄군에 의한 희생임이 확인됐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21일 하루에만 수많은 사람이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했고, 장갑차를 타고 있던 사람은 조사천씨가 아닌 고(故) 김준동씨였음을 확인했다. 조사천씨는 같은 날 오후 시위 도중 총을 맞아 기독교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오후 2시 사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故) 조사천, 고(故) 최미애씨의 유가족은 스카이

데일리를 향해 엄정한 수사과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고(故) 조사천 씨의 아내 정동순씨는 “5월21일 남편은 계엄군의 총에 맞아 눈을 감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찾은 남편은 부패가 심한 상태로 입관이 되지 않았다”며 “지금껏 5·18을 왜곡하려는 세력들과 싸워왔다. 이번에 강력히 처벌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최씨의 아들은 “저희 어머니는 5월21일 학교에 나갔던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뱃속의 아이와 함께 돌아가셨다. 왜곡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네 번, 다섯 번씩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기사가 쓰여지는 이유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꼭 처벌받아 다시는 유족들이 아픔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검찰, 지난 결심 공판서 ‘사형’ 구형
法 “치밀한 계획성 보이지 않아”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한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드물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였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거나 강도 등 중대한 범죄가 결합된 경우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치밀한 계획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타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사망케 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 광산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께 광산구 우산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